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독거노인 농가서 '고추 수확' 봉사활동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9.29 18:39



농촌일손돕기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평창지역 자활센터와 협력해 지역 내 독거노인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 수확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추진됐다.

약 600평 규모의 고추밭에서 진행된 이날 활동에는 공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농가를 직접 도왔다.

공단은 이번 봉사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와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지역사회 연대 강화라는 사회적 의미를 함께 담아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농작물 수확과 출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고추 수확에 참여한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추밭 주인인 독거 어르신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순철 이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일손돕기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